



오버에어 버터플라이 기체 이미지.

한화시스템, 美 에어택시에 300억 투자

미래 공중 모빌리티 선점

오버에어, 버터플라이 개발 본격화
저소음 고효율 '최적속도 로터' 적용

한화시스템이 에어택시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6일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에어택시 선도기업인 오버에어(기존 K4에어로노티스)에 대한 2500만 달러(약 298억원) 투자 계약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에어택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의 항공기 전문가 신재원 박사를 영입해 에어택시 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는 보잉과 에어버스, 아우디 등 항공기 및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구글과 우버 등 세계적인 기술기업과 아마존, DHL, UPS 등의 전자상거래와 물류기업, 170여 개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항공기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 미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에어택시 시장 진출을 위해 오버에어와 지분 투자를 통한 협력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버에어는 에어택시 사업을 위해 수직이착륙기 전문업체 카렘 에어크래프트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세계적 승차공유서비스 기업 우버가 추진 중인 '우버 앤리베이트'의 핵심 파트너사 중 하나다.

이번 투자 승인 완료로 오버에어는 개인항공기 버터플라이의 개발을 본격화한다. 한화시스템은 버터플라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기술 및 사업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버터플라이는 전기식 수직이착륙기(eVTOL) 타입으로 저소음 고효율의 '최적속도 로터' 기술을 적용했다. 보다 조용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어택시 구현이 가능해 도심용 모빌리티 서비스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기체이다. 개발사양으로는 파일럿 1명 포함 5명 탑승에 현 배터리 성능으로 비행 속도 240km/h 이상에 운행 거리 100km 이상이 가능하다.

카렘 에어크래프트 설립자 겸 오버에어 공동설립자인 에이브 카렘은 중고도 장기제공 무인정찰, 공격기 프레데터의 원형 개발자로서 14개 기체 설계 경험을 갖춘 항공 전문가이며 오버에어에서 최고 개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버에어 CEO인 벤 티그너는 카렘 에어크래프트 사장, 프론티어 시스템의 앤지니어링 부사장, 보잉의 A160 프로그램 담당 최고 엔지니어직을 역임한 바 있다.

향후 오버에어와 한화시스템은 미연방항공청(FAA)의 형식 인증 승인을 목표로 버터플라이 기체를 민수용 교통체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다. 아울러 한화시스템은 오버에어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 PAV 분야에서도 기회를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관련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개발 과제에도 참여 중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와 협력을 통해 에어택시 사업을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방문시 ‘차’ 드려요”

〈茶〉

현대자동차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현대 차(茶)' 3종을 증정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국내 블렌딩 티 전문가와 함께 특별히 개발한 '현대 차' 3종을 엽서 형태 포장에 담아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다.

'현대 차' 3종은 운전 중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음 진정에 유용한 스위티(애플파이 티),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상쾌한 느낌의 세이프티(페퍼

민트 루이보스 블렌디드 티), 피로할 때 마시는 액티비티(캐모마일 레몬밤 블렌디드 티)로 구성됐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현대 차' 이벤트도 진행된다.

현장에서 운영되는 '블렌딩 체험존'에서는 차 재료를 활용해 방향제를 만들수 있고, 전문가와 함께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현대 차 블렌딩 클래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기아차, 팔리세이드-텔루라이드 쌍끌이 흥행

SUV로 美서 판매 절반 해치웠다

11월까지 SUV 66만8328대 팔려
권역별 경영체계… 소비자의견 반영

현대·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량 절반이 이상이 SUV로 채워졌다. 역대 최대치 도 돌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11월까지 미국에서 66만8328대 SUV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량 120만7171대 중 55.4%를 SUV로 채운 셈이다.

현대기아차가 SUV 미국 판매 비중을 50% 이상 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30.9%)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회사별로도 현대차는 51.9%, 기아차는 59.4%나 됐다. 당초 현대차는 2013년만에도 18.2%에 불과했지만, 최근 SUV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기아차는 2014년 처음 50%를 넘긴 후 올해 60%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19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된 기아차 '텔루라이드'의 모습

/현대기아차

SUV 인기 비결은 단연 신차다. 현대차는 2017년만해도 싼타페와 투싼만을 미국에서 판매했지만, 지난해 코나와 넷츠에 이어 올해에는 팔리세이드와 베뉴를 투입한 바 있다. 권역별 경영 체계를 도입하면서 북미 지역 소비자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다.

기아차도 2016년까지 쏘렌토와 스포티지, 쏘울 등 3종에서 2017년 니로, 올해 텔루라이드로 SUV 전문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갔다. 특히 현대차 팔리세이드가 2만3082대, 텔루라이드는 5만2108대를 판매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서도 링컨 애비에이터와 맞붙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1분기 기아차 셀토스에 이어 제네시스 GV80을 출시하며 SU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의류케어 가전, 해외에서도 通했다

독일서 에코버블 기술력 인정 받아
美 매체서 2019 최고의 건조기 꼽혀

삼성전자 의류 케어 가전이 해외에서도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인기가 높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제품 평가 전문 매체인 ETM은 삼성 세탁기(WW81J5436FW)에 95.7점을 부여했다. 최고등급, 평가 제품 중 가장 높은 점수다. ETM은 삼성전자 '에코버블' 기술력과 함께 물과 전기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에너지 위너'로도 선정했다.

미국 디지털트렌드는 삼성전자 제품을 '최고의 드럼세탁기'와 '최고의 전자동세탁기'에 선정했다. 특히 '플렉스 워시'는 세탁공간 2개로 최고의 드럼세탁기에 뽑혔다. 전자동 세탁기(WA50M7450AW)는 '무세제 통세척+' 기능으로 인정받았다.

미국 리뷰드닷컴도 삼성 건조기(DVE45R6100C)를 '2019 최고의 건조기' 중 하나로 꼽았다. '애디터스 초이스'로도 선정했다. 표준건조 모드에서



삼성전자가 IFA2019에서 선보인 가전.

세탁물을 51분만에 100% 건조하는 효율성과 스팀 기능, 샴페인 색상 등에 점수가 높았다.

씨넷도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를 '스마트 기능'과 '뛰어난 성능' 부문에서 '최고의 세트'로 정했다. 그 중에서도 '플렉스드라이' 건조기에는 모바일 앱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스마트 기능부문에서 최고로 올렸다. 건조기(DVE45M5500Z)에도 빠른 건조 시간과

우수한 에너지 효율 등 기본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 굿하우스카핑도 8개의 우수 세탁기와 건조기에 삼성 제품을 포함하고 종합평가에서 최고 제품에 선택했다. '최우수 제품'에 선정한 삼성 건조기(DVG52M7750V)는 40분 안에 건조를 마무리하고 구김도 덜하다고 분석했다. 플렉스드라이도 '가장 혁신적인 건조기'라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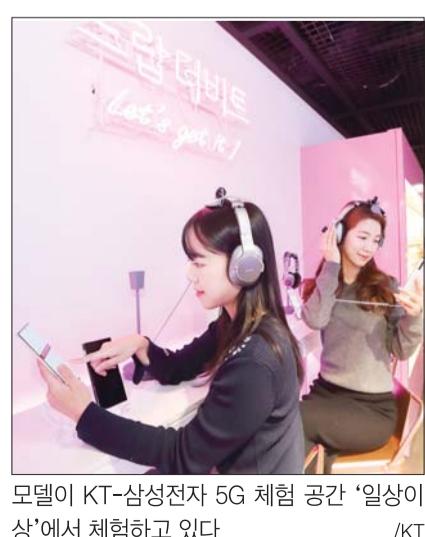
KT-삼성전자 밀레니얼세대 저격… ICT 체험공간

KT와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5G 체험 공간 '일상이상'을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기획한 일상 이상은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정보통신 기술(ICT) 체험 공간이다. KT의 최신 5G 서비스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요즘 트렌드에 맞춘 '코인세탁소'를 콘셉트로 전시장 곳곳에 대형 분홍 세탁기와 버블, 그리고 '미스터 두 낫팅' 캐릭터 등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재미 요소를 더했다.

일상이상에서는 지니뮤직의 24비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드랍더비트', 에어드레서를 활용한 아웃터 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코너를 만나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